

총선D-1년 광주·전남 지역 정가 ‘박광온 효과’ 주목

이낙연 전 대표 6월 귀국 앞두고 친낙계 결집 관심
 “특정 계파 유·불리보다 당 통합·쇄신에 방점” 해석
 통합형 원내지도부, 대 정부·여당 투쟁 강화 시험대

비명(비이재명)계이자 친낙(친이낙연)계 인 전남 출신 3선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역 정가에 미칠 ‘박광온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6월 귀국을 앞두고 친낙계의 ‘조용한 결집’이 주목받는 동시에 특정 계파보다는 총선 승리를 목표로 당 쇄신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4월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28일 4표전으로 치러진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169표 중 85표, 50.3%) 득표로 당내 2인자 자리에 올랐다. 결선투표로 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동성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1984년 MBC에 입사해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장 등으로 활약한 뒤 2014년 7·30 보궐 선거 때 국회에 입성,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에 이어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내 친문·친낙계로 불린다. 비명계로도 분류되지만,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기도 했

다. 야1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박광온 시대’가 열리면서 민주당의 뒷발이자 박 원내대표의 정치적 뿌리인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낙연계의 결집이 예상된다. 친이낙연계는 거대한 계파로 분류되진 않지만, 호남 일부 지역구 의원과 동교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원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시장위원장인 이병훈, 전남에서는 민주당 총선 공천TF 단장인 이계호 의원, 윤재갑 의원,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동교동계 설훈 의원과 박광온 새 원내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정부 고위 관료 등을 중심으로 당내 입지자들이 총성없는 전쟁에 뛰어들어 가운데 공천을 위한 내년 당내 경선 과정에 ‘이낙연·박광온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곧바로 이어질 원내지도부 구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일 광주에서는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극단적 진영 대결과 포퓰리즘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첫 지방심포지엄을 열 예정이어서 정치적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행사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의 6월 영구 귀국을 앞두고 지역내 친낙계, 나아가 비명계 세력 결집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를 특정 계파와 연결시키는 시각은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고 의원총회의 숨은 표심과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재명 대표,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통합의 길”, “담대한 변화”를 일성으로 밝혔고, 그 일환으로 계파논리를 벗어난 ‘통합형 원내지도부’ 구성 등도 유력시되고 있다.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사건”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고 특정 계파가 아닌 모두의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원

내 표심을 반영한 쇄신 의지로 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엔 사람이 없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은 폐기하고,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검거히 수용하라”고 공개 요구해 거센 대 정부·여당 투쟁을 예고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친낙계로 분류되긴 하나 계파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옅은 반면 통합과 쇄신주의자여서 당내 여러 리스크를 수습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투쟁’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립방정식과도 같은 숱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작년 보험사기 적발 1조원 돌파...6월까지 특별단속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경찰이 상반기 전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로, ▲실손·정액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818억원이었다.

경찰은 그간 상시·특별단속을 병행하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 2020년 보험사기 범죄 3810건, 1만1606명을 검거하고 피해액 2081억원을 적발했다. 2021년에는 3189건, 9637명을 검거하고 1314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검거건수 1632건, 4908명, 적발 피해액은 2318억원이었다.

이는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한 뒤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지능범죄에 집중하고 단순 환자는 입건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단속 방침을 바꿨기 때문으로 검거건수·인원은 줄었지만 적발 피해액은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범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관계기관의 수사외의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내 주요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하는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임원직 정성 심사외의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재환기자

전남 개별공시지가 ‘5.90% ↓’...순천 연향동 땅 최고가

목포 하락 폭 가장 커...전남도,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지역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5.90% 하락한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3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

는다고 4월28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정에 따라 과도한 국민 조세 부담 완화, 경기 침체, 집값 하락 등이 반영돼 전국 평균 전년 대비 5.73% 하락했으며 전남은 이보다 하락폭이 컸다.

시·군별로 목포시가 6.88%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무안군 6.84%, 영암군 6.71% 순 등으로 하락했다.

전남지역 지가 하락은 경기침체와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1㎡당 423만8000원이고, 최저 지가는 영암읍 농터리 토지로 1㎡당 171원

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재검증을 통해 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근로자의 날 휴무로 다음호 3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국토의 입체화로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트윈으로 리허설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